SU-D45

혈액 투석요법을 받는 환자에서의 10년 생존율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황현석 · 형복진 · 이소영 · 전연주 · 송준창 · 윤혜은 · 최범순
양철우 · 김용수 · 김석영 · 최의진 · 장윤식 · 방병기

10 Years Survival in Hemodialysis Patients

Hyeon Seok Hwang, Bok Jin Hyoung, So Young Lee, Youn Joo Jeon, Jun Chang Song
Hye Eun Yoon, Bum Soon Choi, Chul Woo Yang, Yong Soo Kim, Suk Young Kim
Eui-Jin Choi, Yun Sig Jang and Byeong Gi Bang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목 적 :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대체 요법 중 혈액 투석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삶의 질 개선과 생리적 투석을 위한 치료가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혈액 투석 환자의 생존율 및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알아 보고자 한다.
방 법 :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강남성모병원 인공 신장실에서 혈액 투석을 시행한 환자 중 초기 신대체 요법으로 혈액 투석을 시행하고 6개월 이상 지속한 50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자의 남녀 구성은 남자290명, 여자 213명 이었고 평균 투석 시작 나이는 56±14세, 평균 투석 기간은33±25개월이었다. 관찰 기간 동안 사망 환자는 91명 (18.1%), 복막 투석으로 전환한 환자는 7명 (1.4%), 신장 이식을 시행한 환자는 34명 (6.7%), 전원한 환자는 231명 (45%), 추적 관찰이 소실된 환자는 70명 (13.9%)이었다. 이중 당뇨병성 신증으로 혈액 투석을 시행한 환자는 205명 (40.7%)이었다. 대상 환자의1년, 5년 및 10년 생존율은 각각 93.1%, 68.0%, 37.9% 이었다.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생존율 차이는 없었으나 50세 이후에 투석한 환자가 50세 이전에 투석한 환자보다 사망률이 2.71배 ($p<0.05$) 높았고 당뇨병성 신증으로 혈액 투석을 시작한 환자가 비당뇨병성 신증 환자보다 사망률이 3.01배 ($p<0.05$) 높았다.
결 론 : 2006년 대한 신장학회 등록 위원회에서 발표한 혈액 투석 환자의 생존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2003년 USRDS에 발표한 혈액 투석 환자의 생존율 보다 높았다. 본원 복막 투석환자의 1년, 5년 및 10년 생존율은 각각 88.3%, 63.6% 48.8%이었다. 장기간 혈액 투석 치료시 혈액 투석 시작 나이, 당뇨병성 신증으로 혈액 투석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이 낮으므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Key Words : 10년 생존율, 혈액 투석
10 years survival, Hemodialysis